



**양계업이 왜, 귀족축산
장치산업으로 불려야 하는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기묘년은 양계인들이 더욱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해이다.

수입개방에 쫓겨 시설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귀족축산”, “장치산업”이라고 비난 섞인 눈초리에 또 한 번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여 위험부담이 큰 자동화 무창계사를 지어 정책자금, 리스자금, 일반 대출금 이자와 원금 갚느라 등골이 오싹한데도 마치 여유자금이 많아 닭을 키우는 시설에 돈 들여 놓고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말은

이해가 안간다고 답답한 표현을 한다.

말대로라면 양계인 대부분은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 우선 돈이 많은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간 양계인들은 양계업은 소외된 축종이라고 소리를 높여 왔다. 안도와줬어도 이정도까지 끌고 왔으니 수입개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상 조금만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면 계란과 닭고기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호소하여 경쟁력체고 차원에서 구조개선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부채 덩어리인 무창계사가 도입된 경위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양계인들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도 쉬우면서, 또한 쉽게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만일 환

율이 1천원대 이하로 빠르게 안정이 되면 수입 산물이 국내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장치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응용해서라도 방법이 있다면 권장을 할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 양계인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 양계업이 존속하는데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계인들이다. 나머지는 조연에 불과하다. 주연의 연기 정도에 따라 영화나 연극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양계인들이 보다더 큰 대의명분을 위해 과감하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21세기에 희망을 갖게 된다.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정이 된 것이 없다. 이대로 우왕좌왕 한다면 질병에 눌리고, 부채에 치여서 시름거리다가 죽고 말 것이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용왕의 병을 위해 간을 떼어주어야 할 입장에서 재치로 위기를 넘긴 토끼의 지혜를 본받아 보다 알찬 한해를 보냈으면 한다.

고환율에도 닭고기 수입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1980년대 중반부터 완전 수입개방은 곧 양계업의 몰락으로 정치권과 업계는 극한 대립을 보인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경쟁력제고 사업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양계인들은 구조개선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육계의 경우에는 계열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열주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왔는데 현 단계에서 볼 때 이미 계약사

육에 의한 육계 공급능력은 국내 전체 생산량에 50%선을 넘어 이제는 80%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당분간은 닭고기 수입이 뜸할 것으로 낙관을 하였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벌써 1998년 11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는 총 9,489톤에 이르고 말았으며, 연말까지 1만2천톤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닭고기 수입이 고환율 속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 품목은 대부분 다리와 날개인데, 환율이 1,300원대에도 수입품이 경쟁력이 있다는게 수입업자들의 평가이다. 물론 이때의 마진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국내산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손해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입 닭고기가 고환율 속에서도 증가하는 이유는 제품의 균일도와 원료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리살의 경우에는 주로 가공용이나 닭갈비용으로 소비가 되는데 국내 사육 여건이 저중량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 국내산은 정육율이 좋지 않아 부득이 수입냉동육을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어쨌든 국내 부분육 생산업자들은 육계가격이 kg당 1,200원대를 넘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어 병아리 값이 높고, 체중이 적은 육계업이 지속되는 한 부위별 닭고기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닭고기 수입은 향후 대비책이 없는 한 증가는 뻥한 일이다. 중국산 가공육이 공식적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풀린다면 기묘년에는 1997년 수준을 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창계사 문제점 보완책 연구가 필요하다.

무창계사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태에 있다. 계사건축으로부터 사양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곳은 극히 드물다. 환경여건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시설을 그대로 들여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이중 가장 큰 애로는 환기관리이다. 단순히 공기를 넣고 빼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연중 관리를 하다보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무창계사의 문제는 환기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끊이지 않고 발병하여 무창계사는 일명 질병 덩어리라는 극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전에 따른 피해는 보완조치만 하면 될 사안이지만 환기관리는 미묘하고 복잡하여 차원이 다른 문제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모델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농가차원의 연구용역은 고사하고, 연구기관, 학계에서조차 관심이 없어 무창계사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이 막대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은 수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고장 때문에 필요한 때에 이용을 못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적어도 오일이 나쁜지, 연료가 안맞는지, 운전조작 미숙인

지 등의 원인 규명은 해야 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국내에 이미 보급된 무창계사는 대략 40%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직립식 케이지의 보급을 참고한다면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무창계사의 도입 경위는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자연스런 환경을 맞추어 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환의 크기, 속도는 물론 사료, 전기, 관리 수준, 방역관리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운용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다. 즉 비싼 차 사서 수리하느라 써야 할 때 제대로 타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현재도 무창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질병 공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드러내 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 고충은 여간 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생산성이 나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부문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산학협동을 재정립하여 원인규명에 나서야 할 때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무창계사란 국제경쟁력 강화에 무용지물이다.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매년 수당 순수익은 낮아지고 있다.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생존이 가능해진다.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이 시작되면 치열한 원가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무창계사가 지니고 있는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못하면 투자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간의 공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계**